

경상북도
의회소식

2023. 겨울 제137호 Gyeongsangbuk-do Council News



QR코드를 통해
경상북도 의회소식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소식





후토에세이

남한의 배꼽에 위치한 황악산

황악산

김천의 황악산은 지도에서 황학산(黃鶴産)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예전에는 학이 많이 찾아왔다고 한다. 백두대간 능선이 추풍령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다가 허리부분에서 기지개를 켜나 할 정도로 솟아 오른 곳이 황악산(1,111m)이다. 그러다 보니 산세가 생각보다 가파르고 험하다. 겨울에는 삼도봉, 민주지산과 함께 폭설 산행지로 등산가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든다. 겨울철 볼 수 있는 설화(雪花)가 매우 아름다운 산이다.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경상북도 의회소식

발행처 경상북도의회 발행인 배한철
편집인 김종수 발행일 2023년 12월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의정지원담당관실
전화 054-880-5144
기획·디자인·제작 동아에드컴

Contents



마주 보다

04 인사말

08 의원 인터뷰 part I

이철구 의원

김창혁 의원

김대진 의원

이형식 의원

김희수 의원

18 5분 자유발언

20 행정사무감사 돌보기

행정사무감사, 생생현장

의원들의 “말말말”

27 신상발언

손잡다

30 의원 인터뷰 Part II

도기욱 의원

김경숙 의원

신효광 의원

박창욱 의원

정근수 의원

40 도정질문

50 처리의안

같이 걷다

56 의원 인터뷰 Part III

박순범 의원

한창화 의원

허복 의원

박채아 의원

차주식 의원

66 의정 News

- APEC 특위, 초우회 출범 등

- 저희도 열공합니다!

공부하는 의원들!

74 나드리 경북

365일 매일이 크리스마스

2023 ~ 2024 한겨울 분천 산타마을

77 독자 참여

숨은 그림 찾고~ 색칠도 하고~

경북을 함께 알아가요

78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지역별 의원 현황



『경상북도 의회소식』 구독 신청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council.gb.go.kr)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의회소식 → 의회간행물 → 의회소식지 '소식지 신청하기'

클릭 후 작성

구독 취소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의정지원담당관실(054-880-5144)로 연락



갑진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경상북도의회를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려워진 민생과 경제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정세는 하루가 멀다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기 부진과 고금리, 고물가라는 3중고로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겨울의 문턱이 되면 도의회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저희 도의회는 더욱 분발하여 도민들께서 주신 의회의 역할과 소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민생을 꼼꼼히 살피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올해 선정된 포항·구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경주·안동·울진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지방시대 경북의 미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 새로운 기회의 장을 당당히 열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대구시는 화물터미널은 민간공항터미널에 포함되므로 군위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역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공동합의문은 항공물류 정비산업단지를 의성군에 조성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런 대구시의 행태는 명백히 합의문에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경북도의회는 화물터미널의 의성군 배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의성군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경북도의회는 늘 그랬듯이 답을 찾을 것이고 보란 듯이 해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도민들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굳건하게 버텨내고 새로운 지방 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갑진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 한 철**

동행
같이



가치

코끝 시린 매서운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앞에도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설경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의 평안을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혼자가 아닌 '같이' 있기에
이 기다림은 '가치'가 있겠지요.

경북도의회도
여러분의 일상의 가치를 같이하겠습니다.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올 겨울이 만들어 낼
또 하나의 절경을 함께 기다립니다.

Happy Gyeongbuk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



1회용품
ZERO 챌린지

경북도의화도
함께 합니다

이회창

영광문양위원장 이회창



이철구 도의원

도의원 의정활동 아낌없는 지원 7개 상임위의 ‘만형 역할’ 특목



김현구 경기도청 기획관리실장

A man in a dark suit is seated at a desk, looking down at a document he is holding. He has a serious expression. The background is slightly blurred, showing an indoor setting with a white tablecloth.

아침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미래 포항 100년, 포스코와의 상생으로 飛上해야

아hn길구

경북도교육청 운영위원장

2023년 7월 3일은 '포항제철소 1차 종합관람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제철소 내 소개할만한 것으로, 제철공정, 열연공정, 후판공정등이 모두 정상가동 중인데 1973년 7월 3일이다.

과거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오늘날 4차산업혁명시대에도 3차 산업과 더불어 최초의 '현대공정'으로서 거점산업 수 있을 만 비록공정 등 포항시 지역의 애호와 생활권을 담보한 것으로, 그리고 애호와 협력이 바탕이 되었다.

경관상경로의 확립상전, 제철소, 높은 산업물 등 장기점재에 따른 제

에 직면해 있다. 생성과 소멸이 자연법칙의 동률이라 하더라도 시대와 고지 천변한관 제철소본관의 형성과정, 용항의 미래 역작인 화력전 위해는 선연관과 광산의 참여 필요하다.

첫째, 시간의 힘이다. 타마양이 풍요하다는 것은 만고(萬古)의 장려다. 저금은 경제와 교육 제도를 위한 물밑타마양이다. 화강과 보스노는 수소에너지원, 철프르메로 추진과 이차전지 특화산업유지 등 포항을 넘어 경제의 미래산업동력에서 타인 사안을 함께 한다.

4차산업혁명의 신성 지대로 언급되고 그리고 고대인의 용광로, 제철공정, 열연공정, 후판공정,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20차, 21차, 22차, 23차, 24차, 25차, 26차, 27차, 28차, 29차, 30차, 31차, 32차, 33차, 34차, 35차, 36차, 37차, 38차, 39차, 40차, 41차, 42차, 43차, 44차, 45차, 46차, 47차, 48차, 49차, 50차, 51차, 52차, 53차, 54차, 55차, 56차, 57차, 58차, 59차, 60차, 61차, 62차, 63차, 64차, 65차, 66차, 67차, 68차, 69차, 70차, 71차, 72차, 73차, 74차, 75차, 76차, 77차, 78차, 79차, 80차, 81차, 82차, 83차, 84차, 85차, 86차, 87차, 88차, 89차, 90차, 91차, 92차, 93차, 94차, 95차, 96차, 97차, 98차, 99차, 100차, 101차, 102차, 103차, 104차, 105차, 106차, 107차, 108차, 109차, 110차, 111차, 112차, 113차, 114차, 115차, 116차, 117차, 118차, 119차, 120차, 121차, 122차, 123차, 124차, 125차, 126차, 127차, 128차, 129차, 130차, 131차, 132차, 133차, 134차, 135차, 136차, 137차, 138차, 139차, 140차, 141차, 142차, 143차, 144차, 145차, 146차, 147차, 148차, 149차, 150차, 151차, 152차, 153차, 154차, 155차, 156차, 157차, 158차, 159차, 160차, 161차, 162차, 163차, 164차, 165차, 166차, 167차, 168차, 169차, 170차, 171차, 172차, 173차, 174차, 175차, 176차, 177차, 178차, 179차, 180차, 181차, 182차, 183차, 184차, 185차, 186차, 187차, 188차, 189차, 190차, 191차, 192차, 193차, 194차, 195차, 196차, 197차, 198차, 199차, 200차, 201차, 202차, 203차, 204차, 205차, 206차, 207차, 208차, 209차, 210차, 211차, 212차, 213차, 214차, 215차, 216차, 217차, 218차, 219차, 220차, 221차, 222차, 223차, 224차, 225차, 226차, 227차, 228차, 229차, 230차, 231차, 232차, 233차, 234차, 235차, 236차, 237차, 238차, 239차, 240차, 241차, 242차, 243차, 244차, 245차, 246차, 247차, 248차, 249차, 250차, 251차, 252차, 253차, 254차, 255차, 256차, 257차, 258차, 259차, 260차, 261차, 262차, 263차, 264차, 265차, 266차, 267차, 268차, 269차, 270차, 271차, 272차, 273차, 274차, 275차, 276차, 277차, 278차, 279차, 280차, 281차, 282차, 283차, 284차, 285차, 286차, 287차, 288차, 289차, 290차, 291차, 292차, 293차, 294차, 295차, 296차, 297차, 298차, 299차, 300차, 301차, 302차, 303차, 304차, 305차, 306차, 307차, 308차, 309차, 310차, 311차, 312차, 313차, 314차, 315차, 316차, 317차, 318차, 319차, 320차, 321차, 322차, 323차, 324차, 325차, 326차, 327차, 328차, 329차, 330차, 331차, 332차, 333차, 334차, 335차, 336차, 337차, 338차, 339차, 340차, 341차, 342차, 343차, 344차, 345차, 346차, 347차, 348차, 349차, 350차, 351차, 352차, 353차, 354차, 355차, 356차, 357차, 358차, 359차, 360차, 361차, 362차, 363차, 364차, 365차, 366차, 367차, 368차, 369차, 370차, 371차, 372차, 373차, 374차, 375차, 376차, 377차, 378차, 379차, 380차, 381차, 382차, 383차, 384차, 385차, 386차, 387차, 388차, 389차, 390차, 391차, 392차, 393차, 394차, 395차, 396차, 397차, 398차, 399차, 400차, 401차, 402차, 403차, 404차, 405차, 406차, 407차, 408차, 409차, 410차, 411차, 412차, 413차, 414차, 415차, 416차, 417차, 418차, 419차, 420차, 421차, 422차, 423차, 424차, 425차, 426차, 427차, 428차, 429차, 430차, 431차, 432차, 433차, 434차, 435차, 436차, 437차, 438차, 439차, 440차, 441차, 442차, 443차, 444차, 445차, 446차, 447차, 448차, 449차, 450차, 451차, 452차, 453차, 454차, 455차, 456차, 457차, 458차, 459차, 460차, 461차, 462차, 463차, 464차, 465차, 466차, 467차, 468차, 469차, 470차, 471차, 472차, 473차, 474차, 475차, 476차, 477차, 478차, 479차, 480차, 481차, 482차, 483차, 484차, 485차, 486차, 487차, 488차, 489차, 490차, 491차, 492차, 493차, 494차, 495차, 496차, 497차, 498차, 499차, 500차, 501차, 502차, 503차, 504차, 505차, 506차, 507차, 508차, 509차, 510차, 511차, 512차, 513차, 514차, 515차, 516차, 517차, 518차, 519차, 520차, 521차, 522차, 523차, 524차, 525차, 526차, 527차, 528차, 529차, 530차, 531차, 532차, 533차, 534차, 535차, 536차, 537차, 538차, 539차, 540차, 541차, 542차, 543차, 544차, 545차, 546차, 547차, 548차, 549차, 550차, 551차, 552차, 553차, 554차, 555차, 556차, 557차, 558차, 559차, 560차, 561차, 562차, 563차, 564차, 565차, 566차, 567차, 568차, 569차, 570차, 571차, 572차, 573차, 574차, 575차, 576차, 577차, 578차, 579차, 580차, 581차, 582차, 583차, 584차, 585차, 586차,

포항시·포스코는 '운영 공동체' 미래 100년 준비 위한 출범전 불협화음 지역발전 대응 안 돼

미래 새로운 먹거리 창출 위해
상생·소통의 지혜 발휘할 때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2월 지구회사로 새 체제를 2023년 3월까지 본격화해 추진하고, 미래기술개발 분야를 포함해 중대, 대·소기업으로 구성해 포항·포스코에 상생협력 및 투자사업을 집중하기로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내 실질적인 기반시설 확충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9일 포스코지주회사 미래기술연구부 부장인 박지나대사(미래기술연구(비대위))가 추진했던 집회를 비롯해 여러 자회사는 시·군과 포스코의 협력과 중요성은 지역발전의 열쇠로 동의하고 있다.

고려 국가발전과 포항의 성장에 있어

비즈니스를 짓을 말한다.

박지나대사, 경북도와 장흥시, 포스코간 상생의 힘이다. 미래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위한 연구 결과 상생 협력하는 과정에서 지역과 지혜의 소통하고 발전하는, 매카니즘이 탄생했다. 포항은 환경산업이 우리 새로운 먹거리를 여지껏 확보한다에 지혜되고 K-산업을의 발달을 일으키고 있는 상생된 소통의 지혜가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 포스코, 포항세원은 이의의 조항 100년도의 비전(비전)을 함께 힘을 합쳐 실현한다. 더 이상 불협화음 소모적 논쟁보다는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있는 도시 '포항'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고 협조와 상생으로 나아갈 것이다.

앞으로 포항경제소 1기 종합중공50주년을 맞아, 그간의 갈등과 양극은 함께 극복하는 용광로, 속세 모두 녹이고, 50년 전 그해처럼 온몸을 바쳐, 고향을 온 몸바쳐 관계를 위한 출발점에 다시 서자.

A group of people, including a pregnant woman, standing in a room decorated for a celebration. A cartoon character is overlaid on the image, pointing towards the group.

A group of people, including a man in a red and black firefighter's uniform and a man in a green jacket, standing outdoors in front of a building. The man in the red uniform is wearing a white face mask and holding a small object in his hands. The man in the green jacket is smiling and looking towards the man in the red uniform. Other people in similar uniforms are visible in the background.

김창혁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구미시 제7선거구
국민의힘

지난 10월 '2023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광역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창혁 의원은 "이런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도움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겸허히 말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그를 만났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공항 배후지역 개발, 구미와 연계해야

몇 년째 가장 '핫'한 이슈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경상북도가 대구에 군위군까지 내주면서 성사시킨 사업이다. 그는 그만큼 이 사업이 경상북도의 미래에 중요하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그렇기에 경북 내에서 큰 도시에 속하고 인프라가 어느정도 갖춰졌으면서도 공항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구미를 활용해 개발하는 것이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공항도시와 배후지역 개발에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도 뛰어난 상황에서, 같은 조건이라면 대도시인 대구로 가는 길목에 있는 군위군이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길목 쪽에 상권이 활성화되는 이치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최근 도정질문에서 공항도시 조기 정착을 위해 구미 등 배후지역과 연계해 개발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항이 완공되고 공항도시와 배후지역 개발까지 완료되면 경북의 인구가 대구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북의 공항도시는 외부 유입 인구보다 구도심 이주 주민만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죠. 이러한 상황에 경북이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경북의 파독 광부·간호사, 예우 필요

그가 대표 발의했던 '경상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들이 이들의 공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파독 광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1960~70년대 경제 개발을 위한 원조 및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파견된 근로자들이었다.

"우리나라 GNP가 불과 87달러인 시절, 1963년도 1회 파독광부 500명 모집에 전국에서 4만 6천 명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소통조차 힘든 그곳에서 광부들은 고된 노동과 싸워야 했고, 간호사들은 오물과 대변 치우기, 시체 닦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예우는 마땅치 않습니다. 그분들의 평균나이가 80세를 훌쩍 넘은 이 시점에서라도, 늦었지만 그분들의 업적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파독 근로자들에게 합당한 지원과 희생을 기념하는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련 지원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미 재도약 위한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최근 그는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의 젊은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경북이 대한민국 산업 중심지로 재도약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구미 유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여러가지 원인 중 가장 주된 이유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급감을 꼽았다. 구미시에 대기업이 많이 자리하고 있을 때 자라는 그로서는 이 상황이 이해된다고 했다. 그때는 유입인구에 비해 주거시설이 부족할 정도로 구미시가 팽창하던 때였다.

"수도권으로 떠나는 이유 중 정주여건, 교육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자녀를 유수의 대학에 보내기 위해,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떠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 좋은 일자리만 있으면 지역에 있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든 산업의 핵심이자 없어서는 안 되는 반도체산업 유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던 겁니다. 경북, 특히 구미시에 유치된다면 그에 따른 좋은 기업들이 함께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안동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올 한 해 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의 등을 통해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했던 김대진
의원. 그에게 2023년은 도민의 입장에 서서
지역의 현안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도록 현장
이곳저곳을 찾아 바쁘게 움직인 한 해였다.
안동지역 도의원으로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의 동분서주했던
의정활동을 들여다 본다.

경북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세심히 살피나가겠습니다



헴프규제자유특구, 식약처 규제 완화 시급

지난 11월 그는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헴프 규제 자유특구 기업 7곳이 이탈한 것과 관련해, 헴프에 대한 식약처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마 성분의 의약품 제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희귀질환의약품센터를 통한 희귀·난치 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외에 정식 수입 절차를 통한 의약품 수입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그는 조속한 관련 법령 개정은 물론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등의 물리적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시 일원에 조성된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규제를 풀어 산업용 헴프 재배와 원료의약품 제조 등의 실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원료의약품을 수출하려면 국내는 물론이고 수출하려는 해외 국가에서 ‘우수 제조 관리 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관련 시설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고, 관련 법령도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규제자유특구 사업 기간 종료까지 1년여밖에 남지 않아 기업들은 사업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구 내 기업들이 확신을 가지고 실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공공의대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 필요성

올해 1월 경실련의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에 따르면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부에서 지정한 응급의료 취약지 전국 98개소 가운데 16개소

가 경북에 있고, 이 중 75%인 12개소가 북부권이란 사실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도청신도시의 열악한 의료환경 지적도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오죽하면 ‘최악의 의료 취약지’라는 오명이 씌어졌을까. 그 역시 이런 도민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인구 260만 명이 넘는 경북에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특히, 경북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권에 조성된 경북도청신도시의 안착은 의료시설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요원하기만 할 것입니다. 초고령과 의료취약이란 이중고를 겪는 경북은, 의료 역량 강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라도 공공의대가 지역에 설립되고 중증·응급 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산불 피해지역을 위한 깊은 고민의 결과

그는 최근 도정질의에서 산불 피해지 복구와 관련한 정책제안을 했다. 안동 산불 피해 지역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등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낙동강 물길을 활용한 보트 카약, 카누 등 수상레포츠 산업의 조성을 제안한 것이다.

“화마가 휩쓸고 간 주민의 터전이 예전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 20~30년, 토양까지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10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제가 기존

조림사업과 함께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수상레포츠

산업 조성 등을 제안한 이유는 예전의 삶을 되찾는데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주민들을 위한 제

깊은 고민의 결과였습니다. 산불 피해지에 새로운 경제가 창출된다면,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은 물론 상

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약한 경북 북부권에 관광

객 유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연

과 산업의 상생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지역경

제부양책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아쉬움은 남는다고 했다.

“어느덧 성큼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올해가 가는 아쉬운 마음은 뒤로하고 다가올 2024년은 각 가정 모두 올해보다 한층 더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마주보다 의원 인터뷰 part I

예천군에 위치한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이전지 현장 확인



원장 이형식



도청 신도시의 발전과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경북의 미래를 모색하겠습니다

이형식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예천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 1 2023. 07. 16. 폭우 피해현장 방문(예천)
- 2 2023. 06. 25. 경상북도 6.25전쟁 제73주년 행사
- 3 2023. 03. 09. 제338회 임시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 4 2023. 02. 09. 경북도의회 이형식 도의원 중소기업회장표창 수상
- 5 2023. 11. 07.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 6 01. 16.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문품 전달
- 7 2023. 02. 17.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 8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현장방문
- 9 2023. 10. 30.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
- 10 2023. 10. 25. 청소년의회교실(예천 효명초등학교)



2023. 06. 26. 우수조례 및 우수의원연구단체 시상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 조례 대표발의 실적

1. 조례 제정 대표발의		
년 월 일	공적 명칭	기관 명칭
17.05.01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	경상북도의회
17.05.01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지원 조례	경상북도의회
17.08.14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
19.02.28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경상북도의회
19.04.12	경상북도 도시형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
19.08.09	경상북도 지역농촌 진흥 조례	경상북도의회
20.02.20	경상북도 산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
20.04.24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경상북도의회
21.09.15	경상북도 보육계단지원금 지원 조례	경상북도의회
23.01.02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	경상북도의회

2. 조례 개정 대표발의		
년 월 일	공적 명칭	기관 명칭
17.09.07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17.10.26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21.10.01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23.05.31	경상북도 바하루 및 악물 오·남용 예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23.08.17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보급 촉진 및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4선 도의원으로 지역을 위해,
도민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행정안전복지위원회
포항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 1 11. 10. 행정안전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경상북도인재개발원) 2 추석맞이 지역 전통시장 방문 및 장보기
3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 조례 대표발의 4 10. 16. 포항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
5 12. 05. 경북일보 언론본보 6 07. 14. 바르게살기운동포항시협의회,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7 어버이날 맞아 포항지역 경로당 위문 8 07. 26. 영주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9 11. 01. 대체식물산업 생태계구축 글로벌 포럼 10 용흥동새마을부녀회와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행사

5분 자유발언

뿌리부터 튼튼한 경상북도를 만든다 의원들의 생생한 활약상을 듣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민을 대신해 의회에 의견을 공론화시키는 도의원들이야말로 도민들의 히어로다. 제342회 임시회에서 울려 퍼진 도민을 향한 의원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어보자.



스마트폰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소식지에 소개된 5분 자유발언뿐만 아니라 도의원들의
지난 발언을 모두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10. 10.)

임기진 의원(행정안전복지위원회/비례)



저는 독도 수호를 위한 예산 지원에 경상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에 배정된 연구사업 예산을 올해 2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삭감하고 독도 주권 수호 예산 역시 25% 삭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 약 27억 원을 배정하고 독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는 외교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독도는 우리의 땅이고,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의 땅이 아니란 말입니까? 일본의 태도는 변함이 없는데 왜 우리만 이렇듯 굴종적인 자세로 일관해야 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국가가 독도를 저버리더라도 독도지킴이를 자처해 온 경북만은 독도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에서 외교 관계 때문에 독도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경상북도가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독도 주권 수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동쪽 섬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10. 10.)

이충원 의원(농수산위원회/의성)



우리 의성군민과 도민들에게 약속한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한 화물터미널 물류단지의 의성군 배치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시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화물터미널의 군위 유치를 강행하고 있으며, 당초 합의문 6조에 '기본계획 수립 시 의성군과 협의하여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의성에 하나뿐인 화물터미널마저 욕심을 내며 상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대구시의 합의 정신 위반과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행정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의성과 경북에 아무런 실익이 없는 현재의 통합신공항 추진 방식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당초 공동합의문에 약속한 대로 화물터미널의 의성 유치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무시하고 대구시에서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의성군민을 무시하고 호도하며 일방적으로 진행 중인 대구시의 통합신공항 추진을 즉각 중단토록 조치하고, 당초 합의한 대로 항공물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화물터미널의 의성 배치를 반드시 실행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10. 10.)

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회/상주)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해복구비와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선과 함께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회복을 지원하는 추가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작물재해보험의 조속한 제도 개선 요구입니다. 재해보험 가입 품목 수와 보상 규모 확대 요율 개선 등 평소 농업인들의 개선 요구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실거래가 대비 6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인상하고, 용자를 통해서 지원되는 대파대와 농경지 및 시설복구비의 보조 비율을 상향하는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재해 지원의 공공성과 국가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서 현재의 재해복구비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조속한 제도 개선과 함께 비보험작물의 보상, 경영비 지원 등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회복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적극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생생현장 의원들의 “말말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언급된 의원들의 “말말말!”
당시 도민을 대변해 문제가 되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서슴치 않았던
경북도의원들의 현장목소리를 이곳에 옮겨본다.



이충원(의성) 의원

가축분뇨 악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악취 관리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농가가 스스로 축사 환경을 관리하고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의 고통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정근수(구미) 의원

도내 50년 이상된 노후 저수지와 안전 등급을 낮게 받은 저수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 저수지 인근 저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비만 오면 불안에 떨고 있다. 노후 저수지 정비 사업비를 증액하고 노후 저수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효광(청송) 의원

꼭지사과는 생산자에게는 노동력과 인건비 절감 효과를, 소비자에게는 더욱 신선한 사과를 먹을 수 있는 이점을 가져다준다. 경북이 나서서 꼭지사과 홍보 및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박창욱(봉화) 의원

소백산 썩든 등 고품질 브랜드육 개발 후 활용에 대한 다양한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계획 대비 뚜렷한 성과가 없고 해당 브랜드육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고급육 개발과 더불어 철저한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



서석영(포항) 의원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시책사업으로 육상수조에서 오징어 사육시험을 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독도새우 종 보존 및 어획량 확보를 위한 종자연구 및 치어방류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최덕규(경주) 의원

농업대전환 사업 중 공동급식시설지원 관련해서는 사업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작년 예산 심사시 농수산위원들이 우려했고 지적한 부분이 현실이 된 것이라고 본다. 집행부가 의회가 우려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노성환(고령) 의원

스마트팜 사업을 하면서 많은 교육생이 배출되고 있는데,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이 스마트팜 영농을 계속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것 같다. 교육 수료 후 수료생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황재철(영덕) 의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일선 시군이 직접 외국과 MOU를 맺고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경북도차원에서 일선 시군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외국과 직접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철식(경산) 의원

어업인후계자나 우수경영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청년 귀어인들이 기존 어민들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으니 청년 귀어인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박용선(포항) 의원

경북 홍보 콘텐츠와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수가 매우 저조하다. 올해 최대 이슈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물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또한 매우 저조하다.



최병준(경주) 의원

시군 자치경찰이 계획을 가지고 수능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사고 예방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SMR(호형모듈원자로) 제작 지원센터 등 국가 사업에 있어 명확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자료 작성에 임해 달라.



김창혁(구미) 의원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관련 갈등 등 대구와의 관계에서 경북도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도민 입장에서는 대구의 주장만 부각되고 있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김대진(안동) 의원

도청 신도시 명칭과 관련하여 공모 이후 8년 동안 지연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신도시 완성과 더불어 도시 명칭까지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



이선희(청도) 의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위원이 10년 동안 위촉되고 있는 것은 위원회 특성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연임 규정 등은 타위원회와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형식(예천) 의원

인재개발원 공사가 중단되고 내부 설계를 변경하여 경북연구원, 경북문화재단 입주시킨다면 비용 및 공사 재개 측면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검토 단계부터 의회와 협의하여 주민들의 목소리가 도지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임병하(영주) 의원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이 즉시 마련되어야 한다. 명품 숲인 소백산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소수서원과 부석사를 품고 있는 영주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연규식(포항) 의원

웰니스관광지 선정 심사에서 2022년에는 3명이 2023년에는 9명이 서면심의를 했다고 지적하며,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의 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한다면 농한기 수입원 확보는 물론 효과성도 확보할 수 있다.



정경민(비례) 의원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추가적인 변호사 비용과 수수료가 혈세로 낭비될 수 있음에도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32강 크리에이터 원형 등 각종 프로그램이 도지사와 기관단체장을 위한 콘텐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강만수(성주) 의원

시군정책연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 실적 1건 외에 나머지는 자문이며, 결과 보고 예정일도 지연 중이다. 시군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과제 개발이 필요하다.



이춘우(영천) 의원

당초 계획에 비해 이용 실적은 물론 민간기업 개발제품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챗경북에 대해 예산을 더 투입하기 전에 사업을 재검토해 달라. 경북연구원은 우수한 인력 확보와 조직 안정화에 매진하여야 한다.



박성만(영주) 의원

경북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선도적으로 정책을 발굴하여 경북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도정 정책에 대해 제안한 실적이 없다. 미래지향적인 정책 발굴 등 경북연구원의 도정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동엽(포항) 의원

민간보조사업이나 각종 행사 등 문화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훼손된 산림의 복구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므로 불법산림 벌채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



도기욱(예천) 의원

중증장애인생산업의 적극적인 사용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에 적극 앞장서 달라. 2015년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안동에 기념센터를 조성한 후 경북의 물산업은 진척이 없다. 물산업 육성에 집중해 줄 것을 바란다.



김대일(안동) 의원

도체육회 등은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여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고 재산권 관리와 행사도 철저히 하라. 산하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으로 회계 관리나 기관공시 등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박규탁(비례) 의원

도체육회가 대구시에 가지고 있는 토지와 관련 1970년대 계약 이후 50년이 지나는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도립무용단의 무용수별 공연횟수가 다르다. 무용수별 편차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김경숙(비례) 의원

맑은누리파크 전망대 설치를 신도시 사람들이 요청했는데 타 시군에 전망대 설치와 운영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운영비를 처리수수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초 협약과도 다르며 BTO사업임을 감안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김용현(구미) 의원

스마트관광 분야는 반도체와 철강에 이은 막강한 산업이며 경북 전체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3대 문화권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우리 후손들이 새마을 정신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근대 문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희수(포항) 의원

인구감소 대응 사업에 관하여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공모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하는 점은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의료원 운영에 대한 예로사항이나 현안사항 등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철구(포항) 의원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글로벌대학으로 최종선정은 되었지만,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 성공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 경상북도 전입의 특정지역 편중현상에 대해 앞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는 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



박영서(문경) 의원

도내 소멸도시의 중소기업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도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 숙식문제 등 외국인 노동자 유입 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



김일수(구미) 의원

북한뿌리상생위원회는 대구 주도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위원회를 통해 경북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법령에 수립이 의무화된 계획 중 미수립 계획 현황이 7개나 되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신속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임기진(비례) 의원

도지사가 2022년에도 관사를 폐지 후 개인주택을 들어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사를 사용 중이다. 최근 경북에서 외국인끼리의 칼부림, 스토킹 사건이 일어났고 외국인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



박선하(비례) 의원

장애인복지과가 기피부서로 선정되었고 총원도 13명밖에 되지 않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장애인 복지 업무가 개선될 수 있다.



박순범(칠곡) 의원

대구경북신공항 인근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소음완충지역 확대가 필요하다. 건설공사 발주 전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현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해 달라.



이우청(김천) 의원

복수터미널 설치안으로 봉합된 군위·의성 간 갈등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북도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신공항 건설 업무에 임해달라. 사드배치 피해지역인 김천시 농소면 지원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 사드 피해지역 주민을 적극 수렴해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한창화(포항) 의원

군공항과 함께 운영되는 대구경북신공항은 2029년 개항하는 가덕도공항과 경쟁을 감안해 여객·물류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와 같은 위험시설물에서 인화물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다.



황명강(비례) 의원

다문화가정에서 언어 소통의 문제로 조기 치료가 힘들어 발달장애 영유아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영유아 건강검진율도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여성장애인들에게 상담, 원예, 공예 등 여러 가지 역량강화 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여 여성장애인 고용률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최태림(의성) 의원

각종 위원회들이 서면회의가 아닌 직접적인 대면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여야 한다. 의료취약지역에 예산만 내려줄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을 찾아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아야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다.



박승직(경주) 의원

대구경북신공항은 화물 물량에 대한 정확한 수요파악 등 면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진방재모자의 내구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경북도 22개 시·군에 시범지역을 선정해 방재용품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지진 발생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하다.



허복(구미) 의원

화물터미널 위치 선정으로 인한 의성과 군위 간 갈등 상황에서 경북도가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가 갈등조정에 실패했다. 구미시의 광평천의 악취발생 등 민원 해결에도 경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



윤종호(구미) 의원

학교복합화시설의 취지를 학교현장에 충분히 이해시키고 실제 필요 여부를 확인 후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설득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대규모시설사업추진시학교현장의애로사항을경청하여야하며,지역민들과상생할수있도록학교장의적극적인사업참여가필요하다.



권광택(안동) 의원

경북 북부권역에는 대안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 안동 지역에 대안학교 설립을 재추진하여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위해 구입한 스마트기기가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스마트기기 활용률이 저조하다. 미래교육을 위해 스마트기기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백순창(구미) 의원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과 관련해 사업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소방 분야 예산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도의화라도 진행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김창기(문경) 의원

대구경북신공항 연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경북도민 모두가 지진대비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연례반복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홍보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남진복(울릉) 의원

경북도는 부산지방항공청과 시공사, 울릉군청과 함께 울릉공항 건설과 관련한 비산먼지 문제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현재 추진 중인 울릉소방서 건설 사업이 준공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



김홍구(상주) 의원

공사지연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 담임교사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특히 저학년의 어린 학생들은 경험이 많은 담임교사가 필요하다.



박채아(경산) 의원

원거리 통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 후 원거리 통학생들에 대한 안전과 위험노출 등에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시,타시·도의업체 구매보다는 도내 장애아동의 향후 근로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경북의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배진석(경주) 의원

지역별로 당면한 현안이 다르므로 교육지원청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개발하여야 한다. 공교육 부실화,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신으로 인한 지역 이탈, 사교육 만연 등의 우려가 있음에 교육과 학력에 대한 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손희권(포항) 의원

메타버스도서관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했음에도 메타버스도서관 운영 실적이 미미하다. 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가 필요하다. 학력 하향평준화 현상에 대한 원인 조사 및 개선, 포항지역 고교평준화제도에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정한석(칠곡) 의원

기술직 공무원의 고졸 채용이 조직 내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업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증, 실기시험 등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시 시·군내 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조용진(김천) 의원

경북교육청은 타시도교육청에 비해 학부모 교육이 부족하다. 부모교육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교육지원청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특색있는 진로·진학설명회를 실시하여 교육주체들이 진로·진학에 대한 정보를 얻고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차주식(경산) 의원

경북 도내 개교 100주년 사업의 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동창회, 지역민 사이의 소통이 필요하다. 학교들의 생활기록부 작성 역량을 키우기 위해 관련 자료를 개발하고 생활기록부 작성 방법에 대한 연수 과정을 개설하는 등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황두영(구미) 의원

폐교를 방지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토캠핑장 등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성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성범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윤승오(영천)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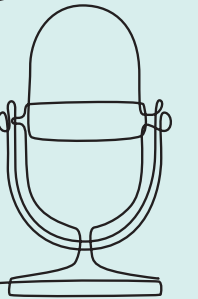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학교가 지역과 소통하고 주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므로, 앞으로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여야 한다.



경북의 핵심 쟁점, 신상발언을 통해 거론하다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10. 20.)

최태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성)



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대구시의 일방적 언론플레이와 막말 중단과 공동합의문의 성실한 이행, 그리고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 대구·경북 상생을 위한 경상북도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 차원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협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대구시의 일방적 언론 발표 중단과 사실관계 왜곡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구시는 민간공항터미널이라는 법에도 없는 용어로 군위군에 여객과 화물터미널을 모두 배치하겠다는 역지를 염두에 두고 '유치 철회 요구'라는 원색적이고 말장난을 치는 한편의 각본을 연출하고 경북도민과 의성군을 들러리로 세우고 있습니다.

둘째, 공동합의문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의성군 공동합의문은 주민투표 결과를 부정하는 군위군 공동합의문 작성 한 달여 이후 집단 반발하는 의성군민들을 달래려고 항공물류, 항공정비산업단지라는 핵심단어가 포함되어 작성된 것으로 이전의 기본 조건이자 시·도민과의 엄중한 약속입니다. 대구시장이 얼마 전까지 주장해 왔던 3할주로 건설 등 경제물류공항 건설 입장을 군공항 중심의 동네공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의성군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항공물류, 항공정비산업

단지'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행정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도지사는 이럴 때일수록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의성군 배치를 비롯한 공동합의문의 적극적인 이행과 대구시의 일방적인 언론 발표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도지사는 대구·경북의 미래 백년을 위해 제대로 항공물류, 항공정비산업단지 기반 국제적인 경제물류공항의 성공을 위해 책임을 지고 도지사직을 걸겠다는 결의의 각오를 보여줘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야 도민들의 오해와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고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인 도의회와도 협력해서 발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상생을 위한 양 의회 차원의 협력을 제안합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협력과 상생을 위한 양 의회 간의 정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정치본연의 역할은 갈등의 조정과 문제 해결입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함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BEAUTIFUL

눈에 띄진 않지만
그렇다고 거슬리지도 않는 이 평온함

지루하리만치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비범해질 수 있단 사실을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은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된 변화니깐요.

“
평범함의

비범함
”

경북 울진군 죽변면 전경

GYEONGBUK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것, 바로 정치가 아닐까요?

도기욱 의원

예천군 제1선거구
문화환경위원회
국민의힘

도기욱 의원은 사회적 행복을 추구하는 데 정치의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치인들의 사명인 것 같다고……. 제레미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다고 말하는 그였다.



관광약자→‘무장애’로 변경하다

지난 6월 제34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기욱 의원은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개정조례안 제명이 ‘경상북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이 관광활동에 장애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위한 관광 환경 조성은 물론 더 나아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발의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휠체어를 대여해주거나 경사로를 만드는 차원을 넘어 특장차량 임대나 무장애관광 지원 등 구체적 사안을 개정안에 명시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보편적 관광향유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경북은 관광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관광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숙박지원도 해주고 봉사자 지원도 해주고, 만약 관광업체가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차량을 구매한다면 일정 부분 도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연구지원팀 신설이 가져온 변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북도의회도 인력 재배치와 증원 등 변화를 겪었다. 가장 체감하는 변화를 물으니 그는 연구지원팀의 신설을 꼽았다. “각 상임위별로 사무실을 분리해 전문위원들이 의원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배석도 가능해 저희도 든든합니다.” 그는 인사권이 독립됐다고는 하나 인원이나 조직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집행부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이 부분까지 도의회에서 진행할 수 있어야 완전한 독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4선 의원인 그의 생각

이번 12대 의회는 초선 의원의 비율이 최고로 높다. 4선 의원인 그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12대 의회는 어떤 모습일까. “지방정치는 흔히들 생활정치라고도 합니다. 내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구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과 현장에서 땀띠리게 되면 예의 바르고 정직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바랍니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고 자기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정치인이 ‘롤린’할 수 있다는 게 평소 그의 소신이라고 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을 벤담이라는 철학자가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야 그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더군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정치로서 실행시켜야 합니다. 특수계층 몇몇의 즐거운 행복이 아닌, 골고루 잘 살고,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에게도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대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저희의 사명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소신껏 의견을 전달하는 의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KIM KYUNG-SOOK



- 1 01. 17. 사회복지시설 방문 2 09. 25. 위문시설 방문 3 09. 06. 경상북도의회 정책토론회 근대문화유산 재조명과 관광활성화 방안
- 4 10. 05. 20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방문 5 02. 09. 2023년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발대식 6 10. 05. 20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방문
- 7 10. 05. 20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방문 8 01. 11. 설맞이 복지시설 위문(문경) 9 01. 18. 2023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문경 신흥시장) 10 06. 20.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 11 01. 18. 2023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문경 신흥시장) 12 05. 25. 제56회 청소년의회교실(문경 점촌초등학교) 13 10. 10. 제342회 임시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 14 05. 25. 제56회 청소년의회교실(문경 점촌초등학교) 15 06. 20.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16 05. 25. 제56회 청소년의회교실(문경 점촌초등학교)

경북의 농업 대전환 각 시군 특성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호광 의원은 23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농정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다. 지난 겨울 5분 자유발언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의 부당함과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도 전문성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그가 농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어젠다를 주도하고 나섰다.

신호광 의원

청송군 선거구
농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사과꼭지 무절단 유통

“마트 가서 사과 살 때 꼭지 있는 걸 고르나요? 없는 걸 고르나요?” 인터뷰를 위해 만난 신호광 의원이 곧장 던진 질문이다. 마트에서 꼭지 없는 사과가 대부분인 듯 해 “없는 거요”라고 답하자, 그는 이내 두꺼운 자료를 펼치며 말을 이었다. “보기 좋다는 이유로 시중에 유통되는 사과 중 90%가 꼭지가 없이 판매되고 있어요. 경매 때 가격도 더 높다고 해요. 이런 관행을 사과로 유명한 청송군이 주도적으로 바꿔보려 합니다.” 그는 사과꼭지를 절단하지 않게 되면 농민에게는 인건비 절감을, 소비자에게는 더 신선한 사과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했다. “사과는 수확 후 꼭지를 채내는 작업을 한 번 더 거칩니다. 우리나라에서 절단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연간 약 66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해요. 이 작업 때문에 일일 사과 수확량도 더 적고요. 또 연구 용역 결과 꼭지를 절단하지 않는 편이 당도와 신선도 유지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전국 60%를 차지하는 경북 사과

듣고 보니 구구절절 맞는 말인데 왜 꼭지 절단이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을까. “꼭지가 달린 사과를 선호하지 않는 유통시장 때문이죠. 선물용으로 꼭지 없는 사과가 더 예쁘다는 소비자 인식도 있고요. 우선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사과꼭지 무절단 유통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추진했으나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됐다고 했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와 유럽국가들은 꼭지를 자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사과꼭지 무절단 유통은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빨리 정착돼야 합니다. 전국 사과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경북이 선도해 나가야 하고, 경북에서는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청송이 주도해 나가야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경북 농업대전환 추진의 방향성

“노동력 절감 차원의 사과꼭지 무절단도 넓게 보면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북도가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며 젊은 농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농업대전환을 추진 중인데, 그 방법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는 현재 경북의 농업정책들이 지역별 특성을 무시한 채 천편일률적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문경, 상주, 예천은 평야가 많으니 당연히 농지를 대규모로 경작하게 하고 젊은 농업인을 끌어들이기 위한 스마트팜, 식물공장, 첨단농업장비 등을 도입하는 게 맞습니다.”

이어 그는 청송, 봉화, 영양처럼 산지로 형성된 시군에는 이런 정책이 옳지 않다고 했다.

“각 시군의 특화된 작목에 대한 대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청송의 경우 사과 재배방법을 전환하는 거죠. 밀식에서 이축·다축형 수형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행히 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정책에 반영하려 준비 중입니다. 획일적인 것이 아닌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봉화군을 대표해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욱 의원

농수산위원회
봉화군 선거구
국민의힘



PARK CHANG-WOOK



1 07. 15. 폭우 피해현장 방문(예천, 영주, 봉화) 2 06. 20.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3 06. 20.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4 10. 17. 경북 전담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간담회 5 09. 25. 봉화송이한약우축제 폐막식 6 11. 11. 봉화JC회장배 봉화군 청소년 풋살대회
7 11. 02.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현장방문 8 11. 21.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9 11. 09.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0 10. 10. 제342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11 04. 25. 농수산위원회 - 농업인단체협의회 간담회 12 03. 22.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3 07. 25. 봉화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14 04. 25. 농수산위원회 - 농업인단체협의회 간담회

경북도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도민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정근수 의원

농수산위원회
구미시 제5선거구
국민의힘



JEONG GEUN-SOO



- 1 07. 25. 농수산위원회 호우피해 복구작업 2 09. 20.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3 10. 0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항 및 영덕 현지방문
4 09. 22. 2023년 경북농식품산업대전 5 10. 30.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 6 09. 22. 2023년 경북농식품산업대전
7 10. 30.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 8 10. 30.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 9 10. 11. 농수산위원회 한동해 산업연구회 현지확인
10 09. 14. 대구·경북 시도의회 신공항 특별위원회 간담회 11 11. 09.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2 08. 30. 꿀벌바이러스연구회 최종보고회
13 11. 09.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4 10. 0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항 및 영덕 현지방문 15 11. 10. 제28회 농업인의날

경북도민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대변해 질문드립니다

도정질문은 도정에 대한 각계각층 도민들의 의견을 경북도 의원들이 청취 및 수렴하여 도지사나 관계 공공기관, 실국 등 부처에 대신 질의하는 절차입니다.

도정질문은 그동안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불공정한 사안이나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대안 방안 및 올바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 지면 관계상 도정질문 전체 내용을 모두 다 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의원별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영상으로 생생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2023. 10. 20.



황재철 의원
(농수산위원회, 영덕)



Q. 영덕 고래불은 전체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농림구역이기
에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
다. 도지사께서 의지를 갖고 관리계획 변경한다면 개발이
가능할 것 같은데 도지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Q. 도지사, 이게 제가 만든 출산 성인축하금 시뮬레이션입니
다. 지금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갖고 출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출산 전후, 본인이 반을 부담하고 국가나 광역정부나 기초
정부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19년 후에 목돈이 되고 지방소
멸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도지
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Q.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가 1만 명도 있고 100만 명도 있
는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도지사께서 선도적으로 행
정체제 개편을 통해 전국으로 파급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Q.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주요사업을 보면 교육 관련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걸 좀 하달을 해서 지역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Q. 지금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고 학교 모집
대상이 자꾸 미달되다 보니까 학교 경쟁력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교육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2023. 10. 20.



박순범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칠곡)



- Q.** 통합신공항 배후단지 조성계획과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를 50km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도지사의 생각은 어떻게습니까?
- Q.** 도지사께서는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10월 중에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회를 구성해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경북의 성공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Q.**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북에서 추진 중인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 Q.** 칠곡군 다부동 일대를 국가보훈시설로 지정하여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백선엽 장군 기념관,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 조형물, 베트남 참전용사 추모공원 등 호국기념시설을 확대 조성하여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성 강화는 물론 호국평화의 도시 칠곡의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어떻게습니까?
- Q.** 마지막으로 무너진 교권에 대한 실태조사, 학부모 민원 대응에 대한 시스템 개선,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 전개, 유아대상 영어학원 무자격 강사 문제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2023. 10. 20.



조용진 의원
(교육위원회, 김천)



- Q.** 의료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자구책을 찾고자 제안하는 경북형 혁신 어린이 진료시스템에 대해 시범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어떻게습니까?
- Q.** 지방의 자주적인 자원 확보 및 재정 관리를 위한 연구 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도지사의 의견은 어떻게습니까?
- Q.** 고졸청년 성공시대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발굴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떤 역할을 해 주실 것이며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십니까?

- Q.** 교육감께서는 김천 학생들의 정보기본권 및 학부모 역량강화 증진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설립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제34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2023. 11. 06.



임기진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비례)



- Q.**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지역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장시키지 않고 잘 활용하여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Q.** 청송 월막지구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이를 위해 청송군 거점지역인 원도시 인근으로 신규 입주자 유입을 위한 도시계획적 규제 완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역의 청장년층 요구에 맞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Q.** 경상북도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해 주기 위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은 도 차원의 기금 설치를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Q.**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농식품부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사업에 차액보전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도지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 Q.**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재 4시간, 5시간 단시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전담사 체계를 전일제로 전환하는 등 늘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돌봄 전문인력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34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2023. 11. 06.



연규식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포항)



- Q.** 포항이 세계 최고의 이차전지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신규용지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국가산업단지 유치 계획과 용지 확보 대책은 무엇입니까?
- Q.**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경상북도 차원의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 Q.** ESG 경영과 관련하여 선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도내 수출기업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도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의 역할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Q.**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 실현의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는데 공공기관 ESG 경영에 대한 입장과 이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Q.**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3년 연속 10만 명 이하일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도지사가 개선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경상북도가 취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 Q.** 올해 야심 차게 발표한 2030 경북관광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성과 관리

계획은 무엇입니까?

- Q.** 환경교육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삭감되는 등 환경교육의 후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Q.**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상북도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 연계 및 시설 활용 등의 구체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환경교육센터 연계·협력 방안은 무엇입니까?
- Q.** 기후위기로 인해 어업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들에 대해 밝혀주시고, 대표적 성과는 무엇입니까?
- Q.** 경상북도가 지금까지 어업인을 위해 어떤 사업을 발굴했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들이 내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 Q.** 경상북도는 지역 어민들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받아 지역 실정을 반영한 동해안 어업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34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2023. 11. 06.



김진엽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포항)



Q. 도 차원의 기존 단지 내 휴업 또는 폐업 · 방치 부지를 조사하여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부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배터리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하여야만 경상북도가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의 선두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Q. 폐배터리 재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입니다. 환경오염에 대응하며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Q.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에 있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대상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Q.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지원대상의 철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시군별 지원금액의 재산정이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Q.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지역과 주민을 위해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Q. 경북교육청 차원의 선제적이고 특화된 자살예방 대책과 친구의 자살로 인한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시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Q. 자살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문의의 상담이나 상담센터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제34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2023. 11. 21.



차주식 의원
(교육위원회, 경산)



Q.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활동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의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Q. 65세 이상이 되어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고령의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의 중증 장애인을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Q. 중증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한 재활병원 통원 차량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Q. 공공재활병원의 운영 적자에 대한 운영비 보전은 경상북도 차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Q. 경산 남천~남산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1순위로 올려 중앙부처와 적극 소통하는 등 경상북도 차원의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Q. 경산 남북을 연결하는 종축도로의 건설과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을 연결하는 순환선 구축, 도시철도 3호선 연장 사업 등의 교통망을 개편하여 동남부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Q. 심리적 위기 학생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담전문장학관을 배치하고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에 대한 총괄적인 대책을 유기적으로 수립하고, 조율을 하기 위한 총괄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Q. 고위기 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면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WEE스쿨과 고위기 학생이 병원학교 입원을 통해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최소한의 학습시간을 이수하고 제때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Q. 100명 이하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 대책과 1,000명 이상인 학교에 상담교사 2명 이상 배치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제34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2023. 11. 21.



노성환 의원
(농수산위원회, 고령)



Q. 국립으로 운영되는 대가야박물관과 우륵박물관을 국립 또는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Q.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포함한 세계유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하여 도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Q. 농업대전환의 성공과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 농업인과 관련 업무 담당자의 스마트팜 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의무 교육과정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Q. 위기에 처한 경북 딸기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령군이 딸기 산업의 농업대전환의 전진 기지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Q. 국토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고령군 개발제한 구역 해제를 심의한다고 하는데 이를 즉시 국토부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고령에 출자·출연기관이나 관련 사업에 대한 유치계획은 무엇입니까?

Q. 고령군 성산면 특성삼거리에서 다산면 송곡리 다산 일반 산업단지까지 총 4.7km 구간은 3단계로 나누어 지방도 905호선 확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2단계 사업 준공 시기를 3단계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최대한 속도를 내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Q. 경북 특성화고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이 경북에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Q. 학교의 위기는 곧 지역사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지역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시급히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34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2023. 11. 21.



김홍구 의원
(교육위원회, 상주)



Q.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을 포함한 장기 추진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Q. 제1차에서 7차 관광계획까지 상주의 관광산업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관광권역을 북부권, 서부권 등으로 설정했는데, 상주시는 어느 권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상주시가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Q. 7차 관광계획에 상주가 북부권으로 분류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또한, 경북의 문화유산 발굴사업에서 타 지역에 비해 상주의 우수한 문화유산들은 왜 빠져 있으며, 앞으로 상주의 문화유산 발굴계획은 무엇입니까?

Q. 상주시 도심이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도심 내 생산녹지지역의 조속한 해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Q. 신안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중요한데 경상북도가 작은 학교도 살리고 인구도 유입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Q. 6.25 참전 및 지원국 장병의 후손들을 농산어촌 작은 마을에 유학생으로 유치하여 교육을 지원한다면 양국의 유대도 강화되고 국위선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Q.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이며 6.25 참전 및 지원국 장병의 후손들을 농산어촌 작은 마을에 유학생으로 유치하는 것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의원발의 조례



1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최병근 의원

개정이유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시행(2023. 11. 10.)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활동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개의 및 간사에 관한 규정, 서면 심의·의결 대상에 관한 규정, 원격영상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사업의 재정지원 범위를 '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사업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

2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최병근 의원

제정이유

- 전국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하루 평균 1만 4천 톤의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이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순환 및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감량기 지원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해 교육, 연구,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박성만 의원

제정이유

-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음. 경상북도 역시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전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융합·활용하여 혁신을 확산하는 등 인공지능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주요내용

-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인공지능산업육성사업과 지원에 대한 사항,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선희 의원

제정이유

- 지역문제의 발굴과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지역문제 해결 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역문제 해결 지원 사업 추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5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권강택 의원

개정이유

-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통합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인중개사 교육의 내실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목적규정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인중개사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6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연규식 의원

개정이유

- 상위법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무형문화재의 진흥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명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전수교육 및 공개와 관련한 규정을 "도무형문화재 보전 등"으로 변경함.
- 도무형문화재의 진흥을 위하여 전승·교육·행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법제처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

7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용현 의원

개정이유

- 사회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식과 가치관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 어린이집이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내 용어를 정비함.

8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규탁 의원

개정이유

-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여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 및 가산 연가일수 확대

9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연규식 의원

제정이유

- 경상북도 차원의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웰니스 관광 인증제도,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규정, 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 웰니스 관광 민간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관해 규정함.

10 경상북도 기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노성환 의원

개정이유

- 사회적 고령화에 따라 은퇴근로자들의 귀어·귀촌 희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연령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관련 조례의 연령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농업인과 어업인으로 분리되어 있던 조례를 통합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기업승계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 수립, 기업승계농어업인 자격 및 선발, 지원 사업 및 심의회, 사후관리 및 홍보를 규정함.

11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신효광 의원

제정이유

-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농업기계화를 장려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농업기계화 촉진과 첨단 농기계 보급 등을 위한 지원사업,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정책위원회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 농업기계화 정책위원회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 농업기계 촉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함.

12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대표발의 **백순창** 의원



제정이유

-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기계설비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계설비공사의 품질향상과 지역업체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범위, 건전한 기계설비산업 정착을 위한 기계설비업체의 책무,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3

경상북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우청** 의원



제정이유

- 경상북도 내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낙뢰피해 방지시설에 관한 용어, 낙뢰피해 예방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방지시설의 설치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낙뢰피해 조사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낙뢰피해 예방 및 예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4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의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박승직** 의원



제정이유

- 사고 및 재난 등 각종 위험에 수시로 노출되어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집행계획과 실태조사 사항, 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 및 지원 근거,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사업 및 비상대기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에 관한 사항,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5

경상북도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허복** 의원



제정이유

- 경상북도 내 공공시설 및 재난안전취약시설 등에 재난대피물품을 비치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재난대피물품 사용 방해 금지에 관한 사항, 재난대피물품의 종류에 관한 사항, 재난대피물품 비치에 관한 사항, 재난대피물품에 대한 관리책임, 재난대피물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6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창기** 의원



개정이유

- 재해구호기금의 조성, 기금의 사용 용도, 기금의 수입, 지출과 출납 등을 현행화하여 투명한 기금 사용 방안을 마련하고 재해 발생 따른 공무원의 기금 사용에 대한 면책특례를 신설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기 위함.

주요내용

- 기금의 용도, 기금의 수입, 지출과 출납, 공무원의 기금 사용 면책특례에 관하여 규정함.

17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우청** 의원



개정이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명결정주체가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어 이에 해당되는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관련 사항을 보강하여 지명 결정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명결정주체 이양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지명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8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손희권** 의원



제정이유

- 경상북도교육청이 학교를 신설하거나 통폐합하는 경우 등 학교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명선정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언함.

주요내용

- 학교명 선정에 대한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책무, 조례의 적용 범위, 학교명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장 등의 직무, 학교명선정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9

경상북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정한석** 의원



제정이유

- 도민의 지역사회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관심 사항의 취재·보도를 통해 도민의 정책 참여 및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도지사 및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책무,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 설치 및 지원대상을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규정함.

20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창욱** 의원



개정이유

-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친환경농수축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식자재공급 및 농가경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조문 전체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및 경비 지원,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의 안정적 공급 지원,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를 규정함.

21

경상북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최덕규** 의원



제정이유

- 쌀 과잉생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금률이 낮은 타 식량작물의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육성계획 수립, 지원 사업과 대상 및 작물에 관하여 규정함.

22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남진복** 의원



제정이유

- 재난·재해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대에 신속한 상황 판단 및 대응을 위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관련 주체들 간의 정보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재난대응시스템의 성능 개선, 보안 강화 등 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재난대응시스템 권한관리자에 관한 사항, 재난대응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는 재난대응시스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재난대응시스템 운영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3

경상북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박순범** 의원



제정이유

- 경상북도는 산불로 소실된 산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복구하기 위해 사유림 내 산불피해수목 벌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풍요로운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산불로 인한 사유림 내 입목의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산불피해수목 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겨울왕국,
마치 세상이 모두
얼어붙어버린 것 같습니다.

신비하고 묘한 느낌,
수빙(樹氷), 수가(樹稼), 무빙(霧氷)으로 불리기도 하는 상고대.

자연이 주는 이 숨 막히는 아름다움을 보며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올 한 해도 당신은 '안녕'한 것 아닐까요?

소백산국립공원
경북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 1794

*Nature of
Gyeongbuk*

양상한 나뭇가지가
저마다 하얀 솜옷을 입었습니다.

2023 지방의정대상 우수조례 및 우수의원연구단체 시상

경상북도의회 (주) 법률저널 후원 대한민국시도의회협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의원님
2023년 지방의정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2023. 6. 26.(월) 주최 법률저널 후원 대한민국시도의회협의회

2023 지방의정대상 수상

지역의 발전, 나아가 경북도의 발전을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범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
칠곡군 제2선거구 / 국민의힘

우수조례 및 우수의원연구단체

경상북도의회 (주) 법률저널

후원 대한민국시도의회협의회

2023 우수조례 및 우수의원연구단체 시상



1 5월 모내기 돕기 2 경북교육청 정전70주년 호국로 걷기 행사(6. 17.) 3 도의회 본회의(6. 12.) 4 예천·문경·봉화 등 피해현장 봉사 5 구급대원 폭행사 형사처벌 강화 촉구(11. 22. 매일신문) 6 어버이날 경로당 방문(5. 8.) 7 양봉연구소 설립 제안(3. 14. 경향신문) 8 대구경북신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식(5. 9.) 9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11. 7. 문경소방서) 10 장애회 배식봉사(7. 31.) 11 신공항 개발예정지역 확대 발언(10. 23. 경안일보) 12 2023 경북여성경제인대회(7. 5.) 13 건설소방위 수해현장 방문(7. 13.) 14 봉화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7. 13.) 15 보훈가족 짜장면 배달봉사(6. 11.)



같이 걷다 의원 인터뷰 Part III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선 동안 쌓은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겠습니다

한창화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
포항시 제1선거구 / 국민의힘



봉화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1 경상북도-엠브레어 항공산업 협력 업무협약 체결(5. 15) 2 포항 연꽃마을 위문품 전달(1. 16. 경안일보) 3 2025 APEC 정상회의 경북도유치 특별위원회(11. 21.) 4 한국수산업경영인 경상북도대회(4. 26) 5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9. 20.) 6 경매매일신문 인터뷰 보도(7. 14.) 7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11. 7. 문경소방서) 8-9 제34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8. 29.) 10 제343회 정례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11. 6.) 11 K-키친 추진위원회 발대식(4. 26.)



제339회 임시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엄격하고 합리적 잣대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허복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구미시 제3선거구
국민의힘



1 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6. 1) 2 구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위문(9. 6) 3 형곡뇌병변주간보호센터, 사랑터어린이집 방문에 따뜻한 온정 나눔(11. 13) 4 봉화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7. 25) 5 제340회 제1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6. 19) 6-7 구미 강남병원 화재현장(11. 19) 8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 대한 행감(11. 14) 9 구미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11. 17) 10 구미시 반려동물입양센터 개소식(9. 6) 11 경북형 학생 경제교육 발전 정책토론회(8. 26) 12-13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11. 7. 문경소방서)

청년이기에, 여성이기에..... 나만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최연소, 청년, 여성의원.....

박채아 의원을 수식하는 단어들이다.

비례대표로서 도의회에 첫 입성했던 그는

그 사이 풍부한 의정 경험을 쌓고,

지난해 경산 제3선거구 광역의원이 돼

제12대 의회에 재입성했다. 스스로가

여성 청년 의원이기에 관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화두로 꺼낸

학생교육환경, 청년, 난임부부에 대한

그의 의정활동 이야기를 들어봤다.

박채아 의원

교육위원회
경산시 제3선거구
국민의힘



경북 난임 지원정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3. 3. 23.)



우수조례 및 우수의원연구단체 시상
(2023. 6. 26.)



2023 K-Beauty 페스타
(2023. 9. 25.)

타지역 원거리 통학생에 대한 지원책

박채아 의원에 따르면 도내 중3년 학생 2만2,285명 중 타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은 3,289명으로 무려 15%에 이른다.
이 3,289명 중 91%에 해당하는 2,995명은 경북도내 시군 간
이동이다.

“올해 한 해만 보면 2,995명에 불과하지만 비슷한 학생 수가 매년
타지역으로 진학한다고 가정하면 고1년부터 고3년까지 원거리
통학자는 9,000여 명에 이른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도내에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
다는 입장이지만 박의원의 생각은 달랐다.

“이와 관련된 상세 데이터 자체를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
다는 것은 이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책마련을 신속히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원거리 통학 학생들이 체력적 · 심리적으로
얼마만큼 힘든지, 또 원거리 통학이 원인이 돼 건강 문제, 학업 부
진, 위험환경 노출 등 학교생활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지 면밀하
게 파악하고 기숙사 증축, 학교 신설, 통학버스 지원 등 각 상황별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을 예비노동자로만 인식해선 안돼

얼마 전 한 컨퍼런스에서 “청년을 단순히 예비노동자로만 인식해
서는 안 된다”는 그의 발언은 도내 청년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 일
률적인 정책과 청년 문제 접근의 한계는 이런 편협한 시각에서 나
온다는 그의 생각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경북도 조례에 근거한 청년은 만 39세까지입니다. 여기에는 대
학생도 있고, 사회초년생도 있고, 젊은 부부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도의 청년 정책 대부분은 취창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취
업한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의 통계는 아무것도 없습니
다. 물론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겠지만 취업 후 주거문제가

있는 청년, 결혼 후 임신 · 출산 · 육아문제가 있는 청년도 있단 사
실을 도가 인지해야 합니다.”

그는 예산이 반영돼 있음에도 청년과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 제
대로 된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며 새로운 시각으로 다각화된 청
년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고 했다.

난임부부를 위한 공약, 드디어 최종본 완성!

그는 초선의원이었던 지난 11대 의회 때부터 난임부부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고심해 왔다. 지난해 경북의 함께 출산율은 0.97명으
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만혼과 고령 출산으로 아이 한 명 낳
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난임부부들을 위한 지원책은 아이를 원하
는 경북의 모든 가정은 물론 경북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
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 도정질의에서
도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고, 제 주관으로 난임 관련 정책
토론회도 올봄에 열렸었죠”

이러한 노력은 난임부부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지원 확대라는 결
실로 영결어 갔다.

“8월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을 뿐만 아
니라 시술비도 100% 지원으로 자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시술
별 1회당 금액도 150만원으로 상향했구요”

여기에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이 또 있다고 그는 귀띔했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각 시
술별로 횟수를 제한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총 22회 범위 내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경북 거주
자라는 조건도 여성만 충족시키면 되고요. 제 의정역량을 발휘한
이 변화들이 경북 난임부부에게 희망의 소식이 됐으면 합니다.”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며
경북교육의 발전,
더 나아가 경북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차주식 의원

교육위원회
경산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1 경산청소년 아침무로 급식센터 방문(9. 19) 2 포항이차전지특화단지유치캠페인(5. 12) 3 남천백반식포도축제(10. 8) 4 삼성전자 C-Lab outside 경북경산지점 개소식(4. 13.)
5 경상북도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5. 9) 6 경산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방문(11. 24) 7 경북일보 보도(11. 22) 8 남천면 달집태우기 행사(2. 5) 9 경북도민일보 보도(11. 23.)
10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10. 12) 11 안전체험관 건립촉구(4. 28) 12 경산교육청 힐링야구장제9(9. 21) 13 경북권역 공공재활병원 운영 지원 대책에 대한 도정질문(11. 21)
14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11. 14. 상주교육지원청) 15 경북 난임 지원정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3. 23) 16 제16회 경북농아인의날 기념식(6. 8.)

경북도의회는 28일 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의회의가 지원하는 집중호우피해 재난구호금 1000만원을 경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재난구호금은 도의회 의원회차 지난 18일에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의회의 제7차 임시회에서 지원이 결정됐고, 이어 21일 7월 22일에는 도의회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집중호우 피해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한 현금 1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배한철 의장, 박영서·박승선 부의장, 이철규 의회운영위원장과 정동호 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함께 했다.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배한철 의장은 "경북을 비롯한 17개 광역·시·도의회에서 호우피해지역의 아픔을 함께 공감한다는 점의 의미가 있다"며 "필요한 곳으로 전달돼 도민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각종 대책 일리고 동참 호소
세수 부족 해법에 앞장서



결핵도 20% 가까이 증가했다. 9월 도지사에 따르면 9월말 기준 결핵도 204800명, 도내 시군 99223명까지 보급률 전국 최상위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월 20일
지방자치단체 거동위원의 부족을
회 예상되는 만큼 순차에 전국지
고 추진계획을 위한 제1회 협의회
취합 나사지기로 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의회는 9월
11일까지 대구 혁신도시를 방문
2020 고령자연구학회에 참여

배헌환 의원은 “여당 공약에
까지 얻을 수 있는 고령이연기
와 불고 재부 불은 일”이라며
어도 겨우 절반 고령에 대한
현하는 고령이연기부에는 연
들어갈 고령의 비례를 줄여
기도 하겠다”고 장여를 일러

간염에 미치는 영향, 1997년 초
간염 진단은 30.2%의 사례
를 수 있으며, 기저에 30.2%
으로 간염환을 고칠 수 있다.
기저는 고혈압을 치료한
지자 또는 농혈을 입문해 가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0월 26일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송지역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에 나섰다.

도의회에서는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30여명이 청송군 현동면 소재의 사과 과수원에서 농장주로부터 간단한 사과 수확 방법을 설명듣고 약 3,000평에 이르는 과수원 수확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농촌일손돕기에는 신요광, 임기진 청송지역 도의원도 현장을 찾아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사과수확에 동참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과수 농가 등 지역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농장주는 "요즘 같은 수확기에

는 작물 관계없이 농장마다 일손이 부족한데다가 수확시기를 놓치면 1년 농사를 모두 망치게 되어 걱정이 많았는데 경북도의회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서 도와주니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라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종수 의회사무처장은, "지역의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농가에서도 일손부족을 토로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먼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해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 도 농민기대도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에 양장서 등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청송군 소재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의회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향상된 지방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새로 도입된 정책지원관과 신규 직원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하였다.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반부패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청렴도 향상 방안,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 및 집행부와의 갈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 강화,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 직원들과

신규공무원 간의 소통의 시간, 심신단련을 위한 헬링교육 및 현장탐방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제12대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과 직원 간 소통행사를 통해 도민을 위한 열린의회를 실현할 방안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배한철 의장은 "이번 워크숍은 제34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회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힘 없이 달려온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주기 위해 추진했다"면서,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도민들이 제창하고 공감 할수 있는 정책 발굴과 대안을 제시해 지방사태를 선도하는 유능하고 침착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llegible]

7

초우회 출범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초우회’ 출범식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0월 10일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초선의원 모임인 “초우회”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박규탁 초우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체 60명 도의원 중 34명(57%)에 달하는 초선의원들은 지역과 중앙에서 다양한 역량을 갖춰 도의회에 입성하였고, 지방의회의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며 초선의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초우회장으로서 의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개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초우회 모임이 단순히 친목도모에 그치지 않도록 의정현안에 대한 조언과 고견을 바탕으로 의장단과 초선의원 간의 소통창구로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 의장단에서는 “어느 때보다 제12대 초우회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초우회가 경북도의회와 경상북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부하는 의원들

저희도 열공합니다! 공부하는 의원들!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 개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신호광)는 10월 12일 안동에서 정책연구위원, 외부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이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의정활동 분야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 이미지 메이킹(송인옥 MCS비즈니스센터 대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심사 분석기법-일반회계(김경희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주제로 예산집행, 예산심사 등 전문가 특강을 통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그리고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정책제안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 내용과 방향 등에 대해서 입법연구팀 이용두 팀장의 발표시간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022년 8월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 연구회의 개최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대표 김홍구 의원)는 지난 11월 6일 예천에서 연구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의는 지난 1년간 연구단체 활동의 결과물인 ‘경상북도 경계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관광자원 개발정책 연구’에 대한 최종결과를 듣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 대표인 김홍구 의원은 “시·도 경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문화관광자원 발전을 위해 충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고, 집행부 대표로 참여한 지방시대정책과에서는 “2024년에는 경계지역 발전과 관련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공부하는 의원들 •



경북지역축제활성화방안연구회, 연구용역 성료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북지역축제활성화방안연구회」(대표 서석영 의원)는 지난 9월 26일 환동해지역본부에서 '경북 지역축제 실태조사 및 방문객 유입 확대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5월 12일 국토도시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의 추진경과와 최종보고 및 이에 대한 의견수렴과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책임자를 맡고 있는 국토도시연구원 김태경 부원장은 경북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축제 콘텐츠 DX(디지털 전환), 2-Port(대구경북신공항과 영일만신항)를 활용한 경북 지역축제 전시관 건립, 광역철도망을 활용한 축제홍보, 지역별 축제 연계,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마련, 지역 축제브랜드 캐릭터 만들기, 힐링 콘텐츠 연계 4계절 체험형 축제 개최를 제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서석영 의원은 지역만의 특색을 갖는 축제 활성화를 통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시·군의 관계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특히 이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공원으로 지정된 영양의 청정 환경과 자연을 활용하여 모범적인 축제활성화 사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고회에 참석한 경북도청 축제관계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 공부하는 의원들 •



다문화가족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성료

경북도의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회」(대표 김일수 의원)는 지난 10월 20일 도의회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사례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계명대학교 사용진 교수는 최종보고회에서 정책수요자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IPA 분석과 도내 가족센터 종사자에 대한 심층 면담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고, 해외 우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사례에 대한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김용현 의원은 다문화가족의 국내 적응과 정착을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중요하지만 참여도가 낮음을 언급하고, 다문화가족의 부모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인 고용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창화 의원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현황 조사와 더불어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과 같은 우수한 정책을 검토하여 경상북도에 적합한 사례를 정책으로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김일수 의원은 다문화가족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지방소멸의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세밀한 정책 추진으로 누구나 살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공부하는 의원들 •



경상북도노인체육활성화연구회 연구용역 마무리

경북도의회 「경상북도노인체육활성화연구회」(대표 임병하 의원)는 10월 10일 도의회에서 '경상북도 노인체육 진흥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스노우볼 박상연 연구소장은 노인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가상현실 스포츠 게임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광역화, 파크골프장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폐교재산을 활용한 노인체육시설 신규 공급을 제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임병하 의원은 보고회에 참석한 집행부 관계자에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체육 활성화에 경북도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어르신들이 체육 활동에 대한 접근과 참여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의정활동으로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공부하는 의원들 •



경북 북부권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성료

경북도의회 「경북 북부권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대표 김대일 의원)는 지난 12월 5일 '경북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3대 문화권 사업장 연계 활용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안동대학교 태지호 교수는 경북 북부권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3대 문화권 사업장의 활용 방안으로 '유교와 힐링의 융합 콘셉트 브랜딩화'를 제안했다. 그리고 연령, 직업, 지역 등으로 관광객을 세분화하여 능동적으로 유치하는 노력과 지속적인 힐링 콘텐츠의 개발, 관광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매력적인 힐링 콘텐츠를 개발하고 추진할 크리에이터(기획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김경숙 의원은 연구결과로 제안된 힐링이라는 정적(靜的)인 부분이 MZ세대에 공감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기욱 의원은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조성된 하드웨어에 비해 소프트웨어가 부족하였으나 이번 연구가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정경민 의원은 3대 문화권 사업장이 장소의 홍보에만 편중된 점을 우려하고, 접근성에 대한 홍보와 실제적 접근성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다. 임병하 의원은 영주에도 '힐링'을 콘텐츠로 하는 산림치유원이 있음을 거론하고, '힐링'만의 콘셉트로 3대 문화권 사업장에 대한 활용과 활성화에 한계점을 우려했다. 김대진 의원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면 의료와 접

목하여 실행하면 더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김대일 의원은 3대 문화권 사업장 활용을 위해서는 브랜드의 선점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보고회에 참석한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경북 북부권에 산재한 문화자원과 역사자원을 활용한 현대적 콘텐츠 개발과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 Helpful** 경북 북부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 Exploit**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 Affiliate** 힐링과 유교를 연계하고, 3대 문화권 사업장 간 연계를 통해
 - Lead(ing)** 경북의 관광을 이끄는
 - Ingenious**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3대 문화권 사업장을 조성하고
 - New** 새로운 관광명소로 재탄생하여
 - Give**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다
- <3대 문화권 사업장의 기본방향(안동대학교 태지호 교수)>



365일 매일이 크리스마스

2023 ~ 2024 한겨울 분천 산타마을

산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겨울여행을 꿈꾸고 있다면 제격인 곳이다.
동심 가득한 동화 속 나라라는 말이 딱 어울릴 듯하다.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봉화군 분천 산타마을을 소개한다.



32억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낸 겨울 대표 관광지

봉화군 분천 산타마을은 백두대간협곡열차(V-train)의 시발점인 분천역에 백두대간이라는 자연 자원과 낙동강의 비경, 동심을 자극하는 산타클로스 이미지를 접목해 1년 내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지난 여름 봉화군 수해 피해로 한여름 산타마을 운영은 취소되긴 했지만 한때는 연 4회 산타마을을 운영하며 33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유치하고, 32억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낸 경북의 겨울 대표 관광지이다. 경상북도, 코레일, 산림청, 봉화군, 마을 주민의 협업으로 산타마을은 발전을 거듭 중인데, 산타클로스를 활용한 창조 테마 관광 개발로 겨울철 국내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기간 2023년 12월 16일(토) ~ 2024년 2월 12일(월)

장소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역(분천2리) 일원

내용

체험관광: 산타열차, 산타눈썰매장, 풍차놀이터, 산타레일바이크, 당나귀꿈마차, 산타우체통, 산타슬라이드, 이글루 소원지 등

볼 거 라: 분천역사 내 · 외부 승강장, 산타시네마, 산타조형물, 크리스마스 트리 및 장식, 크리스마스 거리 등

공연행사: 분천역 앞 관광객 쉼터 주말공연 등

먹 거 라: 산타빌리지 푸드코트 운영, 농 · 특산물 판매장, 산타카페 운영 등



산타와 함께 동심의 세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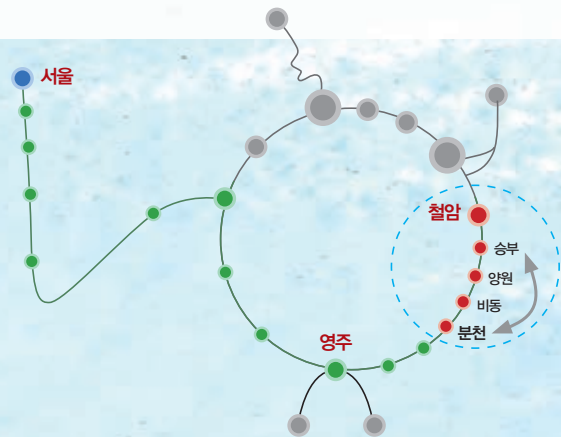
이제는 '한국의 시베리아'로 불리는 봉화 지역 첩첩산중에 위치한 분천역은 철암과 분천 사이를 오가는 백두대간협곡열차(V-train)가 출발하는 역이자, 중부내륙순환열차(O-train)가 정차하는 역이다.

이 분천역 안팎에 산타클로스와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산타마을이 처음 꾸며진 건 2014년 12월 무렵이다. 한국과 스위스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분천역과 스위스의 체르마트역이 자매결연을 맺은 후 국내 최초 산타를 테마로 한 관광명사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산타마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이 바로 지붕에 'Santa Village'라고 새긴 분천역, 산타 시네마, 소망 우체통, 이글루 소망 터널, 물안개 터널, 산타 카페, 산타 레일바이크, 자전거 세어링, 산타 열차 휴게텔, 먹거리 장터, 산타 슬라이드, 농 · 특산물 판매 부스, 대형 풍차 등이 아기자기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겨울에는 눈썰매장과 얼음썰매장도 운영한다. 봉화 산타마을에서는 날마다 신나는 크리스마스다.

지금은 잠시 멈춤! 백두대간협곡열차 (V-트레인)

분천 산타마을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고 싶다면 백두대간협곡열차(V-트레인)를 이용해 보는 것을 강력 추천하건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영동선 선로 복구 완료 전까지 운행 중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낙동강 세평하늘길 트레킹도 복구 완료 시까지 당분간 폐쇄 중이다. 백두대간협곡열차는 하늘도 세평, 땅도 세평인 백두대간 협곡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국내 최초 개방형 관광 열차이다. 열차명 V는 'valley(협곡)'의 약자이며, 협곡의 모양을 의미한다. 절벽과 바위산으로 둘러싸인 백두대간 협곡 사이를 백호의 모습을 한 복고풍 테마 관광 열차로 여행하며 오감으로 자연을 느낄 수 있다. 백두대간 협곡을 짜릿하게 누빌 수 있도록 천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유리로 되어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두눈 가득 담을 수 있다. 영주·분천역과 강원도 태백 철암역을 오가는 백두대간 협곡열차에 몸을 실어 눈 덮인 아름다운 백두대간을 감상하는 것은 겨울여행의 또 다른 백미다. 선로 복구가 완료되면 꼭 한번 방문하길 추천한다.



숨은 그림 찾고~ 색칠도 하고~ 경북을 함께 알아가요

경북 봉화군 분천 산타마을



숨은그림찾기 응모 방법

어른도 아이도 즐거운 그곳, 산타마을
청도에 비해 덜 알려졌지만 겨울철 봉화군을 방문하게 된다면 꼭 둘러보면 좋다. 마을 전체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뽐낸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곳곳에 준비해 있다.

응모방법

개성을 살려 예쁘게 칠해 보세요. 그림 속 숨은 그림을 모두 찾았다면 QR코드를 통해 참여해 주세요. 12월 31일까지 참여해 주신 분 중 당첨자를 추첨해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이름과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문의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의정지원담당관실(☎054-880-5144)

가을호 당첨자

이○숙(5919), 김○은(5503), 황○연(4039), 이○형(8148), 이○남(1001)

* 축하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증정하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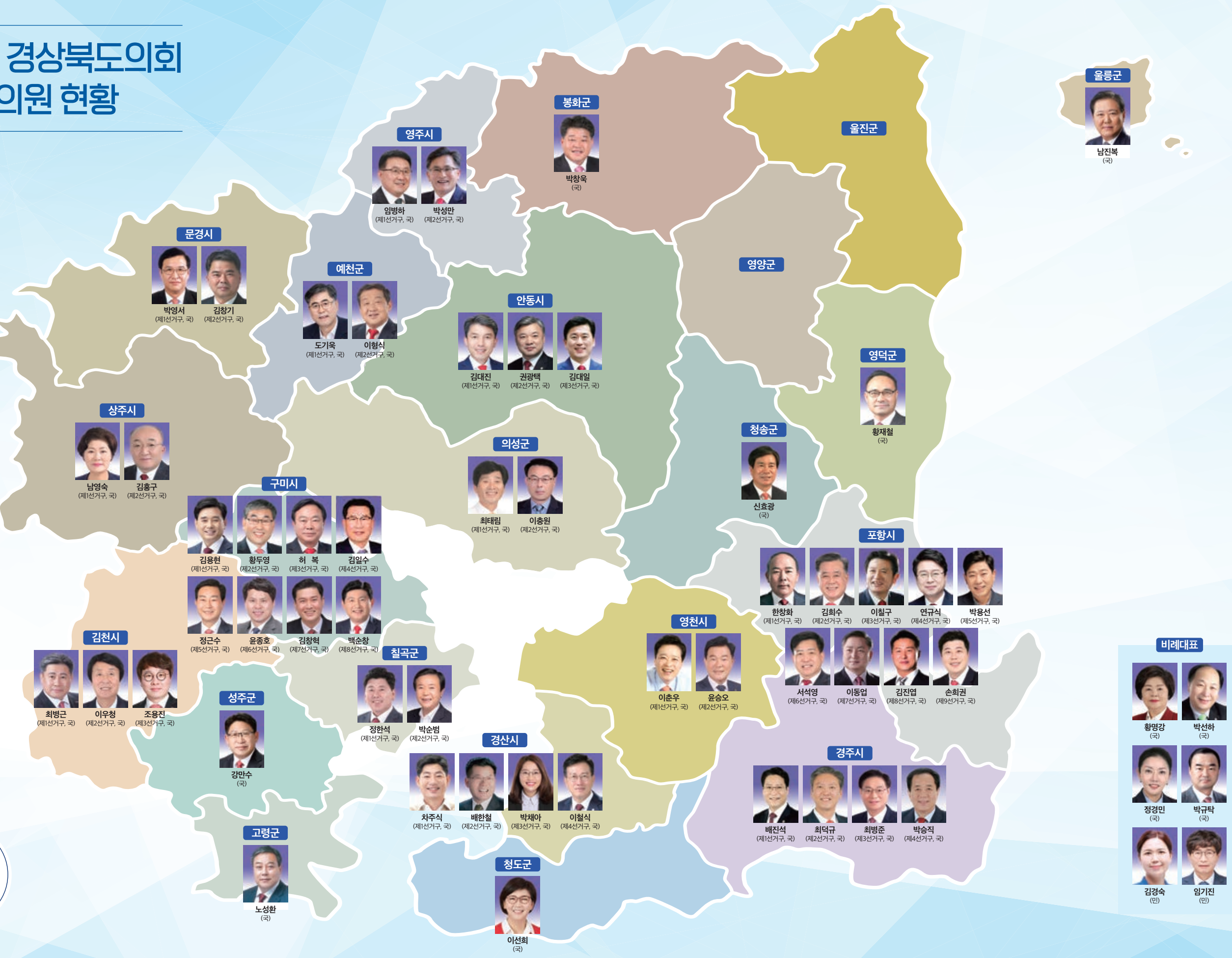


참여 QR코드



『경상북도 의회소식』
구독 신청 QR코드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지역별 의원 현황



| 정당표시
 • 국민의힘: 국
 • 더불어민주당: 민